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보조기기 산업 육성 지원 및 서비스 보급 인프라 연계... 원스톱 리빙랩 구축
- 제품 개발·사업화부터 현장 실증 적용까지 원스톱 추진 가능해 시너지 효과 기대



▲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홍남표 부센터장,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조금란 팀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 이하 '센터')가 5일(화)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센터장 문경래)와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산업 육성 지원과 보조기기센터의 서비스 보급 인프라를 연계하여 실증을 위한 원스톱 리빙랩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식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오창명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과 문경래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장 및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빙랩 구축과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건의 및 사업 기획 ▲인프라 상호 교류 등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시장 운영 및 견학, 상담과 평가를 통해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는 지난 2011년 개소한 이래 보조기기 개조 및 제작, 대여, 점검 및 세척 등의 서비스와 함께 복지관, 특수학교, 보건소, 병원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보조기기 보급 및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창명 센터장은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와 함께 **관련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부터 현장 실증 적용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경래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애 수요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호남권 지역의 특성에 맞춘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및 수요 발굴, 제품 개발, 사용성 평가 및 상용화 등을 통해 보조기기 산업 육성과 지역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